

“진정한 해방은 선거나 사법 제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영혼 속에서 시작한다.” 에마 골드먼

비혼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파티 비혼PT나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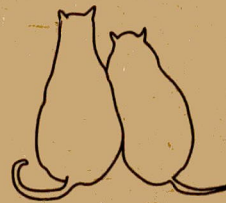
30대 미혼 급증, 서울거주자 30대 여성 10명 6명이 미혼...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 에 대해 말하고 있는 통계와 기사들은 많지만, 그 이면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행복,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간파한 채 남녀 간의 혼인과 혈연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이 정상,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또, 결혼하지 않는 삶은 불안과 외로움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혼이 반드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가야하는 것은 아니지요. '급증하는 비혼' 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앞에 두고, 우려를 보내는 대신, 다양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시도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혼들이 모여 스스로, 그리고 함께 생활 문화-정치를 생성해나가는 것 역시 '비혼 현상' 속에 살아숨쉬는 또 다른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비혼PT나이트>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과 발표자들이 모인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혼으로서의 삶의 모델과 대안을 탐색해나갈 수 있는 공동의 장, 비혼 네트워크 파티에서는 비혼으로서의 불안, 행복, 대안과 아이디어를 이야기해줄 **15명의 스피커** | <페치쿠차>, <이그나이트> 와 같은 발표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짧고도 강렬한 PT(프리젠테이션) 축제 | <비혼PT나이트>는 **15초X15장**의 슬라이드, 또는 **20초X20장**의 슬라이드 발표로 진행됩니다.

언니네트워크는?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 -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www.unninet.net)를 기반으로 2004년 첫 불을 지핀 여성단체입니다. 비혼 및 성소수자 여성들의 생활, 문화, 정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액션과 네트워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혼동맹, 위대한 모듬

비혼 운동을 위한 적립,
그리고 그 속에서 동거할 우리들을 위한 적립
믿을 것은 언니들의 지지와 후원뿐!

www.unninetwork.net Tel 02,3141,9069 Fax 0303,0799,1217
(121-8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4-17 101호

비혼 PT나이트 후원 |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금



15 SPEAKERS
SLIDES
SECONDS

비혼PT나이트

나를 비혼 여성주의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7월 8일 (금) 저녁 7시 홍대 비보이극장 <베이비>

"오히려 나의 '비혼'은 그 모든 행복이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리라는 편견을 거부하는 것이다." 무영 <언니네 방 2> 중에서

2

단단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
해방감이 아닌

한 발짝도 디딜 수 없는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순간, 시, 간.

하지만 이런 밀 빠진 불안을 이기는 것은
단단함에 대한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지 않아도 서로의 울통불통함을 메꾸며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손을 내밀고 내민 손을 맞잡을 줄 아는 용기를 배우는 것

그렇게 많은 이들과 손을 맞잡고 걸어난 길을 차곡차곡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의 움직이는 지도가 되어가는 것

불안에 맞서온 용기있는 언니들이 만들어온 작은 길
불안을 함께 이기는 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비혼PT나이트에서 만나 함께 걸어가요.

〈비혼PT나이트〉스피커 라인업

(발표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니 비혼PT나이트 기획단 | **B다이러리** 비혼이 뭐예요? 이거는 신세계~ 어리버리 비혼입문기

난새 | **여신들의 섬에서 비혼을 외치다** 하늘보다 눈부시고, 바당보다 강렬하며, 오름보다 위풍당당한
제주 여신들. 그녀들의 삶 속에 감춰둔 비혼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강치 마포주민3년차 |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여자** 4인 정상 가족은 정말
정상일까? 평생 돌보고도 정작 돌봄받지 못하는 엄마에게 비혼 큰 딸은 근심일까? 대안(희망)일까?

푸하 수퍼난동말티 곰곰, 트랜스맹추말티 빵이와 동거중 | **우리과 그들에 관한 진실** 많은 비혼인들이 만난
많은 반려동물들. 단순히 우리가 서로 외롭기 때문에 만난 것만은 아닌 듯 하다. 비슷한 종류의 오해와 편견 속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 아닐는지. 비혼과 반려동물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관한 이야기.

샘 | **나의 비혼 이모 이야기** '시집보내지' 않기 위해 열아홉살에 집을 뛰쳐나와 70년 인생을 살아온 이모가
전하는 메시지!

엠겐 소사동 동거녀 3인방 중 유일한 성인이자 바보 1위: | **B(ore), 혼** 아무리 생각해도 내겐 아직(방년 21세)
인 이야기. 비혼은 커녕, 결혼부터가 남의 일 같다. 미래로 타임워프할 능력은 없는 고로, 지나온 청소녀기를
결노질해봤다. 결혼 밖의 존재들에게 비혼은 어떤 의미일 수 있을까?

타리 패션왕을 지향하는 타리 | **확장된 비혼의 정치학으로서 파트너쉽 고민하기** 7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지지하고 '가족' 의 의미를 확장하기 위한
파트너쉽 등록법" 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김비혼 | **기호 13번 국보비혼당 김비혼** 아~답답하다. 이 나라 정치! 2012년 대선에는 국보비혼 김비혼
, 이 사람을 찍어줘~

한날 과잉행동성 활동가 | **나의 똥오줌은 누가 받아줄 것인가?** 결국, 많은 언니들이, 이 질문 앞에
무너진다. 지극히 물리적인 외로움. 내 옆엔 누가 있나.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

S자매 몽&뽀 | **20년전으로부터 온 편지** 이미 20년 전 독신여성들로만 구성된 단체가 있었다? 비혼의
목소리를 에피소드가 아닌 역사로 기억하기 위해, 우리보다 한 발자국 먼저 내 담았던 여성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이완 | **바당-밭에서 共生** 이농 3년-제주살이 6개월 차. 가난한 하치하이커, 우리 4인 4색 반농반X 일단 1
년을 살아보기로 했다. 파궂은 나날. 2007년 '정착과 유목 사이 비혼여성생태공동체' 모임을 제안했던 나는 진화하고
있나? 돌아보고 음미하기엔 너무 이른. 밭을 갈아 씨앗 넣는 시절이다. 비혼-퀴어와 농부-잠녀 되기. 이런 조합도 있다

비비 전주 비혼여성공동체 | **전주에 가면 비혼여성공동체가 있다** 다름을 조율하며, 서로의 꿀을
봐주고 사는 공동체 이야기

무영 | **비혼의 존엄한 노후** 비혼, 어떤 사람은 혼자서 나이들어 가는 것이 걱정된다고 했다. 나도 걱정된다.
아무튼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혼자서 외롭게 나이들까봐. 그래서 요즘은 걱정하기보다는 준비를 한다. 존엄한
비혼으로서의 노후를 위한 준비!

33세 노미 | **비혼, 건투를 빈다** 만만치 않은 비혼, 감초같은 개소리 모음 <꼬매고 싶은 입>을 뛰어넘어
무엇보다 격려가 필요하다. 우리 시대 비혼들을 격려하는 Hot & Cool 덕담과 조언들인 <the B word>를 통해 비혼의
영양분을 만들어보려한다.

"예정된 길을 가는 것은 스스로 길을 찾거나 결정하는 것보다 편하다"

- 리타 쥐스무트, <여자로 살기, 여성으로 말하기> 중에서

